

# 고유가 대비 연료전지 기술개발 박차

## KIER, 수소에너지 중·장기 전략 추진 ... 대체에너지 보급확대 방침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손재익)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6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큰 산업(55%), 수송(21%), 가정 및 상업(21%) 부문에서 에너지 10% 절약을 목표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신 반응 분리기술, 중유 대체용 초청정 석탄 생산기술, 에너지 저장기술을,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형 환경친화 건물기술, 건물의 신 조명기술, 초다공성 소재 개발기술,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 연료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수소에너지 등 3개 중점 분야의 신 에너지 기술과 발전 대체효과가 큰 해상 풍력발전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각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연료전지 기술, 박막 태양전지 기술, 수소에너지 기술, 해상 풍력발전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중·장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수소·연료전지 연구부를 신설한 데 이어 과학기술부의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 개발 사업단을 유치했다.

또 제주도 북제주군에 2005년까지 2만7000평방미터 규모의 육상 풍력기지를 설립하고 인근 바다에 2009년까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시범용 해상 풍력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손재익 원장은 “지속적인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 개발력의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단기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09>